

1. 삼국시대

오늘날 우리가 순천의 연혁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의 일부부터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금의 순천은 삼국시대에 백제의 영토로서 하나의 군이었다고, 당시의 지명은 삼평(歙平)이었다. 그리고 부근에는 역시 백제의 분차군(分嵯郡 : 낙안, 현 보성군 벌교읍 고읍), 둔지현(부유, 주암면 창촌), 마로현(광양, 광양읍 마로산 고성), 원촌현(여수, 여천군 쌍봉면), 노산현(돌산, 여천군 화양면) 등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순천과 그 주변지역이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에서 순천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백제는 660년(의자왕 20)에 신라와 당의 협공을 받아 사비성과 웅진성 등 수도지역이 침략군에게 점령되고 663년에는 항전의 중심지이던 주류성(전라북도 변산)과 임존성(충청남도 대흥)이 함락됨으로써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영토는 당과 신라에게 양분되었다. 660년 이후 4년 동안에 백제 영토의 동반부(경남의 낙동강 이서지역, 경북 서남부, 전남·북 동부, 충북 남부·동부)는 이미 신라에게 점령되었고, 그 서반부 평야지대는 당에 직속되었다.

당의 점령지, 곧 웅진도독부의 관할이 도독부와 7주 및 51현으로 개편되었으며, 동시에 그 지명들도 모조리 중국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당군이 다수 주둔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쥐고 있었지만, 웅진도독에는 의자왕의 태자인 부여 룡이 임명되고 주자사와 현령에도 백제인들이 많이 기용되었다. 말하자면 백제국은 반쪽 영토에 당의 군사지배를 받으면서나마 어쨌든 형식상 부흥된 셈이었다. 이런 백제국의 부흥은 물론 백제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당의 기만적 계책이며 '동이 삼국(東夷 三國)'에 대한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즉, 신라를 이용하여 백제를 공멸한 당은 이제 백제국을 괴뢰로 내세워 신라를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이 세운 동방정책의 다음 단계 작전이었다. 사실 당의 백제 침략은 고구려와 신라까지도 정복하려는 계획의 제1단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한편 663년 당시에 분차(낙안)는 분명히 당령 백제의 한 주였으나, 삼평(순천)은 이미 신라령으로 편입되었던 것 같다. 당령과 신라령의 경계가 정확히 지금의 어디쯤이었는지, 또한 신라령의 편제는 어떠한지, 그 편제에서 삼평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잘 알 수 없다. 백제를 침략하여 그 영토를 분할 점령한 신라와 당은 668년에 또 동맹하여 고구려를 공멸하였다. 그러나 일단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자마자 틈이 벌어져 670년부터는 서로 적이 되어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앞서와 달리 거란과 말갈을 동원한 당이 그 속령인 백제와 연합하고 신라가 일부 고구려인과 연결하여 대립한 형국이었으며, 백제가 지배했던 지역과 지금의 임진강·한강 하류 유역이 주전장이었다. 처음에는 쌍방이 일진 일퇴를 거듭하였으나, 당의 국내외 사정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신라 쪽에 유리하게 전황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676년의 기벌포해전을 마지막으로 전쟁은 끝나고 당군은 드디어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당군이 패퇴하자 백제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684년까지 그 전토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백제는 건국된 지 700여 년 만에 마침내 소멸되고 만 것이다.